



19일 전남도교육청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100일 성공 개최 다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100' 성공 다짐

전남도교육청 성공개최 기원행사
5월 29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의석학 강연·미래교실 운영 등

전남교육청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100일을 맞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

청 간부, 전남도민관산학협력위원회, 전남학부모회 연합회 회원, 전남학생의회 학생 등 교육가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가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교육의 미래 희망을 밝히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식전 행사로 나주의 초·중학생 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현악 앙상블 '더 카이로스'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도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전남교육청

과 교육부, 전남도, 경북교육청 공동주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주제로 해외 석학들의 강연, 글로벌 미래 교실 운영, 미래 교육 전시, 문화예술교류, 미래 교육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K-팝, K-드라마가 지구촌의 한류를 주도하듯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K-에듀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K-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가 전남 학생과 교실로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이중언어 강사 워크숍' 수업 시연
학교·지역 중심 글로벌 역량 강화

전남교육청이 학교·지역 중심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및 지역 중심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환경을 기회로 활용하고 전남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교육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올해는 학교 중심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 강점 개발 정책학교 운영 ▲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우수인력 확보 ▲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중언어 개별교육 운영 및 지

원 ▲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찾아가는 이중언어교실, 이중언어캠프, 전남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단위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난해 이중언어강사 양성 기초·심화과정 및 전문가과정을 수료한 이중언어강사 30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일본어와 중국어 교수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 학생활동 중심 이중언어 어휘 교수법 ▲ 놀면서 배우는 다양한 읽기 교수법 ▲ 학교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수법을 직접 배우고, 다양한 언어로 수업을 설계·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지난해 제정된 '전남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교육 조례'가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또 법무부·법제처 관계자와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법·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의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이중언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중언어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의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조선대 치대, 국시 실기 2년 연속 100% 합격

전국 유일...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최고 등급 6년 획득

조선대 치대가 2년 연속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00% 합격,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주는 평가인증에서 최고등급 달성하는 등 치대의 우수한 역량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학장 민정범·이하 조선대 치대)은 졸업생들이 2022년과 2023년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했으며 2023년 실시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주관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의 최고 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대 치대는 1974년 지역 사회에서 최초로 치과대학의 문을 열었으며 올해 2024년은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대 치대는 개교 초부터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을 목표로 매진한 결과 1996년에 한국교육협회 주관 전국 의·치학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치의학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초창기부터 치의학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선대 치대가 일찍부터 치의학교육에 깨어있는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해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현재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필기시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다. 2년 연속 실기시험 100% 합격은 조선대 치대의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 필기시험을 포함한 전체 국가고시 합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조선대 치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치의학교육에 투자한 결과 2023년에 실시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주관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의 최고 등급 인증도 받았다. 민정범 학장은 "조선대 치대는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갖춘 대학으로 성장했고, 지난 50년간 배출된 3500여명의 졸업생들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각 지역에서 구강보건 지킴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자부심이 되는 대학이 되기 위해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의 초심을 잃지 않고 100년 대학 건설과 100년 인재 양성의 목표를 위해 나머지 반세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1학부 1비즈니스센터' 구축 활기

회계세무 통합 비즈니스센터 개소...현장경험·실무역량 강화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의 새로운 핵심 가치인 기업가정신 구현을 위한 1학부(과) 1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학교 백인관 5층에서 회계세무 통합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사진)을 갖고 재학생들의 현장경험과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LINC3.0사업 지원을 받아 구축된 회계세무 통합 비즈니스센터는 전자필관, 전자교과, 무선 복합기, 일체형 PC, 실시간 녹화 및 편집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실무용 저준 아이큐브 ERP(회계, 인사, 물류, 생산 전도물)를 비롯해 ▲실무용 세무사랑 프로그램(2024년 1학기 중, 한국세무사회 무상기증) ▲센터 PC통합복구관리 솔루션(Net-Class 9.0) ▲센터 장비보안용 CCTV 등을 구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회계세무 통합 비즈니스센터는 이같은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향후 회계·세무·법률 관련 광주광역시와 국제청 등 정부위탁 교육사업, 국가공인 자격시험 고사장 유치, 교육청 연계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가족기업 경영지도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동진 총장은 "기업가정신을 현장에 반영하는 각 학부(과)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재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현재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센터, 경찰행정학부 통일교육센터, 문예창작과 웹소설창작연구소 등 각 학부(과)별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센터를 구축·가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